

산업구조조정과 제조업 노동시장의 구조변화(1987-1994년)

조형제
사회학과

<요 약>

80년대 말 이후 한국의 제조업부문 노동시장은 급격한 구조변화를 겪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조업 부문 생산직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를 현재 진행 중인 한국경제의 산업구조조정의 성격과 연관시켜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성장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집약되는 현단계 산업구조조정의 성격은 생산직 노동시장의 수급구조를 성장산업과 사양산업에서 상이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노동시장의 수급구조가 이렇게 변화됨에 따라 성장산업의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양산업의 취업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2) 성장산업과 사양산업의 생산직 노동시장의 공급구조가 상이하게 변화되는 이유는 성장산업과 사양산업의 노동비용 격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성장산업은 노동력 수요가 급속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인력난을 겪지 않는 반면, 사양산업은 노동력 수요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처럼 대조적인 양상은 대기업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임금과 고용안정성을 기준으로 볼 때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3)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산업 대기업에 고유한 기업특수적 숙련은 아직 발달되지 않고 있다. 관리감독은 강화되지만 기능적 숙련의 수준은 높아지지 않고 있다. 이는 현단계 산업구조조정의 성격과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성장산업의 대기업들은 생산직 노동자들의 숙련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써 기존의 대량생산에서 벗어나려고 하기보다는 대량생산방식을 재정비하면서 단순반복적인 반(半)숙련노동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성장산업 대기업의 내부노동시장은 '개방형' 내부노동시장의 특성을 보인다.

Structural Change of the Labour Market in the Manufacturing Sector during the Period of Industrial Adjustment in Korea(1987-1994)

Cho, Hyung-Je
Department of Sociology

<Abstract>

The labour market in the manufacturing sector in Korea has experienced a structural change since the late 1980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structural change in relation to the ongoing industrial adjustment in Korea since the late 1980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industrial adjustment under way is focused on the strengthening of high-growth industries such as automobiles, electronics, shipbuilding etc. The industrial adjustment affects the demand and supply structure of the blue collar labour market unevenly. That is, while the number of blue collar workers is rapidly increasing in the high-growth industries, it is considerably decreasing in the low-growth industries such as textiles, garments, footwear etc.

2) The reason why the supply of blue collar workers is rapidly growing in the high-growth industries is because of the increase of wages in this sector. As wages keep increasing in this sector, the turn-over rate of blue collar workers is rapidly decreasing. Especially this phenomenon is distinct in the big companies of the high-growth industries. As regards wages and employment stability are concerned, the internal labour market seems to have been formed within the big companies of the high-growth industries.

3) Even though the internal labour market in this sector has been formed, firm specific skills have not been developed yet. The functional skill remains at low level, while the function of management and monitoring is kept on intensifying. While the mass production system is being restructured, the simple and repetitive nature of work in the big companies of the high-growth industries largely persists. According to Doeringer and Piore, the characteristic of the labour market in this sector is the 'open' type of the internal labour market.

1. 머리말

80년대 말 이후 한국의 제조업부문 노동시장은 급격한 구조변화를 겪고 있다. 1987년 이전까지 제조업부문의 생산직 노동시장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통합 노동시장의 성격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1987년 이후에는 주요 산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확대되면서 생산직 노동시장의 분절화가 진행되고 있다(배무기, 1991 ; 송호근, 1991). 특히 주요 산업의 대기업에서는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노동시장의 구조변화가 현재 진행 중인 한국경제의 산업구조

조정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80년대 말 이후 국내외 조건의 변화 속에서 한국경제는 기존의 성장방식이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구조조정이란 기존의 산업구조에 입각한 확대재생산이 한계에 직면할 때, 민간기업과 정부가 이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시장의 구조는 산업구조조정의 성격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 산업구조조정이 어떻게 추진되는가에 따라 산업별로 노동력 수요가 다르게 나타날 뿐 아니라 특정 산업 내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이한 노동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또한 각 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의 질도 크게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노동시장의 구조변화가 지닌 의미를 동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조정과의 연관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산업구조조정과 노동시장에 각기 국한된 것이었을 뿐 서로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에서 규명하려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하면 다음과 같다.

- 1) 80년대 말 이후 진행 중인 산업구조조정은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2) 성장산업과 사양산업 노동시장의 노동력 공급이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 3) 성장산업 대기업의 내부노동시장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산업구조조정의 성격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2. 산업구조조정의 성격과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80년대 말 이후 국내외 조건의 변화 속에서 민간기업들은 제조업부문의 주요 산업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전체적으로 산업구조조정으로 구조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조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담당하는 간접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단계 산업구조조정의 초점은 성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제조업부문의 민간기업들은 유망한 성장산업(전기전자·자동차·철강·기계·석유화학 등)에 대해서는 설비투자를 집중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경쟁력을 상실한 구조불황이나 사양산업(신발·섬유·의복 등)에 대해서는 업종전환이나 해외투자를 추진하고 있다(임휘철·전병유, 1990). 첨단산업(생물공학, 정보통신, 우주, 항공, 로봇틱스 등)은 장기적으로는 유망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의미를 지니기보다는 성장산업의 경쟁력을 보완해 주는 의미를 지닌다.

<표 1> 주요 산업의 설비투자 실적 (단위 : 억원, %)

연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산업						
전기전자	21,760	25,653	21,605	24,748	24,554	34,886
(비율)	19.7%	19.9%	13.4%	13.7%	15.7%	21.8%
자동차	8,345	9,758	14,673	15,103	14,353	17,798
(비율)	7.5%	7.6%	9.1%	8.3%	9.2%	11.1%
철강	19,223	24,070	25,819	26,864	22,161	17,181
(비율)	17.4%	18.7%	16.0%	14.8%	14.2%	10.7%
기계	2,812	2,804	5,324	6,396	5,504	6,138
(비율)	2.5%	2.2%	3.3%	3.5%	3.5%	3.8%
석유화학	12,529	20,237	30,004	28,590	13,710	8,437
(비율)	11.3%	15.7%	18.6%	15.8%	8.8%	5.3%
소 계	64,669	82,522	97,425	101,701	80,282	84,440
	58.4%	63.9%	60.5%	56.1%	51.4%	52.7%
섬유	8,745	6,923	8,717	8,241	9,868	11,142
(비율)	7.9%	5.4%	5.4%	4.5%	6.3%	7.0%
신발	861	648	613	1,184	818	346
(비율)	0.8%	0.5%	0.4%	0.7%	0.5%	0.2%
소 계	9,606	7,571	9,330	9,425	10,686	11,488
	8.7%	5.9%	5.8%	5.2%	6.8%	7.2%
제조업 ¹⁾	110,737	129,049	160,950	181,150	156,304	160,162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1) : 이 표에서 언급하지 않은 모든 관련업종들까지 포함한 제조업 총계.

자료 : 한국산업은행, 『설비투자계획조사』, 각년도.

<표 2> 주요 산업의 동기별 설비투자 실적 (1993년) (단위 : %)

산업 투자동기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기계	석유화학	섬유
신제품생산	36.4%	34.7%	10.2%	16.5%	37.3%	7.3%
설비확장	28.0%	20.4%	41.3%	30.9%	27.6%	44.4%
합리화 ¹⁾	17.5%	12.3%	35.4%	31.2%	19.8%	39.0%
유지보수	9.9%	3.7%	28.7%	22.8%	14.0%	20.0%
자동화·생력화	6.8%	6.8%	5.0%	7.8%	4.3%	18.5%
에너지절약	0.8%	1.8%	1.7%	0.6%	1.5%	0.5%
공해방지	1.2%	1.2%	1.6%	1.1%	2.3%	1.4%
연구개발	10.7%	20.9%	2.0%	11.1%	6.2%	3.0%
기타	6.1%	10.3%	9.5%	9.3%	6.8%	4.9%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1) : 합리화란 기존 생산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재편하는 것으로서, 세부항목으로는 유지보수, 자동화·생력화, 에너지절약이 있다.

자료 : 한국산업은행, 『설비투자계획조사』, 1993.

1987년 이후 설비투자는 주로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기계, 석유화학 등의 성장산업에 집중되고 있다. 1993년 현재 이들 5개 산업에 대한 설비투자액을 합산하면 제조업 전체 설비투자액의 52.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섬유, 신발 등 사양산업에 대한 설비투자액의 비중은 10% 미만으로서 화섬 등 일부 부문을 제외하고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표 1>).

주요 산업의 설비투자 실적을 동기별로 분석하면, 성장산업과 사양산업의 차이가 뚜렷이 확인된다. 최근 몇년간의 동기별 설비투자실적은 비교적 안정적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1993년의 현황만을 살펴보기로 하자(<표 2>). 성장산업에서 철강산업을 제외하고는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신제품을 생산하는 라인을 건설하거나 기존의 생산설비를 확장하는 투자에 주력하고 있다.¹⁾ 특히 한국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는 전기전자와 자동차산업에서 이런 특징이 뚜렷하다.

반면에 사양산업 중에서 업종을 전환하거나 해외로 진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롭게 설비투자를 확대하기보다 기존 생산설비의 합리화와 관련된 투자에 주력하고 있다. 사양산업 중 섬유산업의 동기별 투자실적을 보면 새로운 제품이나 생산설비를 위한 투자보다 생산설비의 합리화를 위한 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섬유산업에서 설비확장을 위한 투자의 비중이 큰 것은 화섬부문의 호황에서 비롯된 예외적 현상인 것으로 해석된다.²⁾

이처럼 '성장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집약되는 산업구조조정의 성격은 노동시장의 수요 구조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즉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기계, 석유화학 등의 성

1) 철강산업은 성숙기의 기술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성장산업에 비해 연구개발의 비중이 낮고 기존 설비의 확장을 위한 투자 비율이 크다.

2) 한국산업은행에서 발간하는 『설비투자계획조사』의 동기별 설비투자 실적에는 의복, 신발산업의 항목이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사양산업의 특징을 섬유산업만을 가지고 유추하는 것은 다소 무리인 것이 사실이다.

장산업에서는 신규 설비를 건설하거나 기존 설비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노동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섬유, 의복, 신발 등의 사양산업에서는 기존 설비의 합리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노동력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성장산업에서도 합리화가 추진되지만 이와 관련된 수요 감소 효과는 설비 확장에 따른 노동력 수요 증가 효과에 의해 압도되고 있다.

<표 3> 부문별 취업자 수의 증감 추이 (단위 : 명, %)

	경제활동인구 (천명)	전산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주1)}
1988	17,305	5,127,972	3,129,416	246,101	1,157,490
(증가율)	2.6%	6.9%	7.0%	12.7%	9.7%
1989	17,971	5,273,169	3,142,974	262,469	1,259,297
(증가율)	3.8%	2.8%	0.4%	6.7%	8.8%
1990	18,487	5,365,613	3,138,031	304,202	1,328,882
(증가율)	2.9%	1.8%	-0.2%	15.9%	5.5%
1991	19,012	5,460,794	3,053,572	346,682	1,441,553
(증가율)	2.8%	1.8%	-2.7%	14.0%	8.5%
1992	19,385	5,882,773	2,972,547	596,459	1,638,318
(증가율)	2.0%	7.7%	-2.7%	72.0%	13.6%

주1) :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포함.

자료 : 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조사』, 각년도.

한편 80년대 말 이후 제조업부문 노동시장의 공급구조에도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노동시장 전체로는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율 자체가 둔화되는 것과 동시에 농촌으로부터 신규 노동력의 도시 유입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전 산업의 취업자 수는 아직까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부터 제조업 취업자 수의 절대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같은 기간동안 제조업부문의 노동력 수요가 계속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제조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노동력의 공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이나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제조업과는 대조적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표 3>).

이처럼 제조업부문 취업자의 절대 규모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 4>에서 산업별로 생산직 노동자의 취업자 수 변화 추세를 보면, 성장산업과 사양산업이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성장산업의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사양산업의 취업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이다. 생산직 노동력의 수요뿐 아니라 공급 또한 성장산업과 사양산업에서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주요 산업의 취업자 수 변화 (단위 : 천명)

연도 산업	1986	1988	1990	1992
전기전자	366.1	476.2	457.3	455.1
자동차	98.6	147.8	179.5	183.9
철강	78.6	85.8	89.3	71.7
기계	149.9	192.3	216.2	259.6
석유화학	40.7	48.4	52.7	51.0
소계	738.3	955.8	1,002.1	1,030.4
섬유	403.2	417.7	357.9	323.3
의복	267.4	281.6	240.5	198.4
신발 ^{주1)}	35.4	34.5	29.7	111.3
소계	706.0	733.8	628.1	633.0

주1) : 1991년부터 성형고무 또는 플라스틱 신발 포함.

자료 : 경제기획원,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경제기획원, 『산업센서스보고서』, 각년도.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의 인력부족률 변화 추세를 보면, 노동시장의 공급구조가 변화된 것을 더욱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력 수요가 큰 성장산업의 생산직 인력부족률이 높고, 노동력 수요가 작은 사양산업의 인력부족률은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기전자를 제외한 성장산업의 인력부족률이 아주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섬유, 의복 등의 사양산업의 인력부족률은 아주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표 5>). 이는 종업원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더욱 뚜렷해진다. 즉, 성장산업의 대기업은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공급받고 있는 반면, 사양산업의 대기업은 여전히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표 6>).³⁾

3) 신발산업은 산업기반 자체가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인력난이 심하지 않다.

<표 5> 산업별 생산직 노동자의 인력부족률 변화 추이 (단위 : %)

연도 산업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전기전자	5.4	4.5	5.3	8.8	5.8	6.2
운수장비	4.0	2.4	5.7	5.1	2.3	1.3
철강	3.1	3.2	3.3	7.2	3.2	2.5
기계	7.0	7.0	8.4	11.1	6.3	5.2
석유화학	3.3	3.4	1.9	1.1	0.9	2.7
섬유	6.1	6.2	7.0	10.4	8.9	8.5
의복	8.4	9.7	15.0	18.1	10.0	12.9
신발	5.6	6.0	7.6	8.8	8.3	2.2

자료 : 노동부, 『고용전망보고서』, 각년도.

<표 6> 산업별 규모별 생산직 노동자의 인력부족률 현황 (1993년)
(단위 : %)

종업원규모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산업					
전기전자 ¹⁾	10.0	10.1	8.8	4.0	3.1
운수장비	3.5	5.7	2.5	1.7	0.2
철강	19.0	6.9	0.9	3.2	0.5
기계	10.2	8.4	1.7	1.0	0.9
석유화학	0.0	3.9	7.9	1.1	0.1
섬유	10.3	9.0	7.2	7.5	8.4
의복	16.8	13.6	13.1	3.9	3.5
신발	3.3	1.0	4.0	0.0	1.9

주1) : 전기전자산업에는 피고용자 중 미혼여성이 대다수인 가전부문이 포함
되기 때문에 다른 성장산업에 비해 높은 인력부족률을 보이고 있다.

자료 : 노동부, 『고용전망보고서』, 1993.

3. 제조업 내부노동시장의 형성

그럼, 제조업 생산직 노동시장의 노동력 공급이 이처럼 불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작용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표 7>은 1990년 성장산업과 사양산업 간의 노동비용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현금급여와 기타노동비용 모두에서 성장산업의 생산직 노동자는 사양산업에 비해 현격하게 높은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다. 사양산업은 제조업 평균 수준에 못 미치는 반면, 성장산업은 전기전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조업 평균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전기전자산업의 노동비용도 가전부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성장산업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만 사양산업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성장산업과 사양산업 간에 나타나는 노동비용의 이런 격차는 대기업에서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는 근속년수, 교육수준, 경력년수 등의 인적변수들을 통제하더라도 분명하게 나타난다(정이환, 1992). 생산직 노동자들이 월등하게 좋은 대우를 받는 성장산업, 그중에서도 대기업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성장산업의 대기업은 노동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큰 데도 불구하고 노동력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성장산업의 대기업일수록 인력부족률이 낮은 데 비해 사양산업은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표 7> 제조업체의 산업별 규모별 생산직 노동비용 비교 (1990년)
(단위 : 원, %)

	중소기업(A) (30-299인)	대기업(B) (300인 이상)	(A/B)
전기전자 현금급여	441,592	576,994	77%
기타노동비용	120,868	123,640	98%
소계	562,460	700,634	80%
(지수)	92	93	
운수장비 현금급여	585,711	876,115	67%
기타노동비용	162,458	170,980	95%
소계	748,169	1,047,095	71%
(지수)	123	139	
철강 현금급여	772,149	900,982	86%
기타노동비용	213,815	224,688	95%
소계	985,964	1,125,670	88%
(지수)	162	149	
기계 현금급여	543,336	714,778	76%
기타노동비용	127,310	242,103	53%
소계	670,646	956,881	70%
(지수)	110	127	
석유화학 현금급여	712,642	978,120	73%
기타노동비용	143,001	241,106	59%
소계	855,643	1,219,226	70%
(지수)	140	161	
섬유 현금급여	409,467	478,201	86%
기타노동비용	76,693	111,943	69%
소계	486,160	590,144	82%
(지수)	80	78	
의복 현금급여	385,442	385,595	100%
기타노동비용	65,631	83,809	78%
소계	451,073	469,404	96%
(지수)	74	62	
신발 현금급여	419,136	394,504	106%
기타노동비용	101,587	64,191	158%
소계	520,723	458,695	114%
(지수)	85	61	
제조업 현금급여	490,606	617,030	80%
평균 기타노동비용	118,917	138,275	86%
소계	609,523	755,305	81%
(지수)	100	100	

자료 : 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 1991.

1987년 이후 노동비용의 격차가 확대된 것은 성장산업의 대기업들이 생산직 노동력의 수요가 커짐에 따라 임금 및 기업복지비용의 지출을 증가시켜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고 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이들 기업이 상대적으로 노동비용 지출의 증가를 수용할 수 있는 지불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비용 지출이 증가한 직접적 계기는 이들 기업에서 노동운동이 활성화된 데 있다. 1987년 이후 성장산업의 대기업들에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생산직 노동자들의 경제적 요구를 강력히 대변함에 따라 이들 기업은 저임금·장시간노동에 기초한 종래의 노무관리 방식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노동비용의 이러한 차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87년 이후 성장산업의 대기업에서는 생산직 노동자의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됐다. 임금 및 기업복지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노동력의 고용안정성이 높아지면서 별도의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이는 생산직 노동자의 이직률이 제조업 평균에 비해 성장산업의 대기업에서 뚜렷이 낮은 데서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표 8>).

<표 8> 제조업체 규모별 생산직 노동자의 월평균 이직률 (1992년)
(단위 : %)

종업원규모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산업					
전기전자	3.3	5.6	4.2	4.2	2.1
운수장비	3.7	3.4	3.0	1.8	1.1
철강	10.9	4.0	2.6	0.3	2.4
기계	6.8	4.4	2.5	0.7	1.1
석유화학	-	1.0	1.1	0.9	1.0
섬유	4.2	6.9	5.4	3.1	4.1
의복	6.5	3.3	4.9	5.3	3.3
신발	2.4	3.5	1.2	10.9	4.0
제조업평균	4.4	4.1	3.8	2.9	2.3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1992.12.

4. 제조업 내부노동시장의 특성

성장산업 대기업의 내부노동시장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임금과 고용안정성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이들 기업에서는 이미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부노동시장의 또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특수적 숙련(firm specific skill)을 이들 기업은 어느 만큼 갖추고 있는가?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들이 숙련을 습득하는 데 필수적인 사내 교육훈련의 현황을 보면, 포항제철 등 극소수의 기업을 제외하고는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입사

후에 3개월 이상의 기능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조사대상 96개 대기업 중에서 6.5%에 불과하다(정이환, 1992). 또한 단기간의 신입사원 교육을 제외하고는 현장의 교육훈련(Off-JT)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능공화'를 위한 직무순환, 직무확충 등의 현장 교육훈련(OJT)도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다(한국사회과학연구소, 1992). 즉, 성장산업의 대기업들은 기업내부에 생산직 노동자들의 고유한 숙련을 형성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표 9>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의 숙련 수준의 변화

	숙련수준(1990년)			숙련변화량(1980-1990년)		
	IS	CS	MS	IS	CS	MS
제조업 전체	2.96	4.67	4.57	0.27 (0.10)	0.22 (0.04)	0.13 (0.03)
저성장산업	2.43	4.35	4.33	0.03 (0.01)	0.06 (0.01)	0.06 (0.02)
중성장산업	2.76	4.61	3.73	0.32 (0.13)	0.17 (0.04)	0.01 (0.00)
고성장산업	3.50	4.95	5.21	0.20 (0.06)	0.27 (0.05)	-0.02 (-0.00)

주1) : IS = 지적숙련 지수

CS = 관리감독숙련 지수

MS = 기능적숙련 지수

주2) : ()는 증가율로서 %를 나타낸다.

자료 : 전병유, 1994, 12쪽에서 재인용.

<표 9>는 지난 10년간 생산직 노동자의 숙련수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준다. 주목할 것은 전반적으로 숙련수준이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 숙련과 관리감독적 숙련에 비해 생산직 노동자 숙련의 핵심적 요소인 기능적 숙련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다⁴⁾. 이러한 현상은 고성장산업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적 숙련과 관리감독적 숙련의 수준은 제조업 평균수준으로 향상되지만, 기능적 숙련 수준은 오히려 미세하게 저하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각 숙련노동간의 상관관계에서 관리감독적 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수록 기능적 숙련노동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다. 즉, 생산직 노동자에 대한 감독노동의 증대 경향은 오히려 생산직 노동자의 전반적인 숙련 향상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전병유, 1994).

그럼, 성장산업의 대기업에서 임금 수준이 높아지고 고용안정성이 증가하는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특수적 숙련이 발달되기보다는 오히려 기능적 숙련수준이 저하되는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여기서 제조업 내부노동시장의 이러한 특성을 한국경제의 산업구조조정이 지닌 성격과 다시 연관시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70년대부터 추진된 중화학공업화는 대규모 생산설비의 도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표준화된 제품의 대량생산방식을 확립시켰고, 이것이 80년대 중후반까지 한국경제의 고도 성장을 이룩한 원동력이었다. 이 과정에서 성장산업 대기업의 노동자들은 고도의 숙련노

4) 지적숙련(intellectual skill)은 작업이 언어적, 수리적, 그리고 관련된 지적 능력 및 자질을 필요로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관리감독적 숙련(management and control skill)은 작업의 역할 구조와 작업 배치가 제공하는 행동의 자의성, 범위, 여유 등을 의미한다. 기능적 숙련(motor skill)은 작업에서의 기능적 숙달 정도와 정교함 등을 의미한다.

동에 종사하기보다는 대량생산방식과 결합된 상태에서 단순반복적인 반(半)숙련 노동에 종사할 것을 요구받았다. 성장산업 노동력의 이러한 성격은 80년대 말 이후 산업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기본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즉, '성장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집약되는 산업구조조정의 성격은 기존의 대량생산방식에서 벗어나서 생산직 노동자들의 숙련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대량생산방식을 재정비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성장산업 대기업의 생산직 노동자들에게는 기업 내부에서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내부승진의 통로도 열려있지 않다. 기껏해야 조장반장 등 하위 현장관리직으로 승진할 수 있을 뿐, 사무관리직으로 승진하는 직무사다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 기업에서는 생산직 노동자들을 내부승진을 통해 기업에 통합시키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1987년 이후 형성된 성장산업 대기업의 내부노동시장은 임금 및 복지수준에서는 외부와 구분되지만, 기업특수적 숙련과 체계적인 관리규칙은 아직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간의 노동력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개방형' 내부노동시장(Doeringer & Piore, 1971)의 특성을 보인다. 특정 기업에서 요구하는 숙련의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결원이 생길 경우 외부에서 신규 노동력을 충원하더라도 쉽게 보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대량생산방식의 재정비로 집약되는 산업구조조정의 성격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5. 맺음말

본 연구는 80년대 말 이후 생산직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를 산업구조조정의 성격과 연관시켜 규명하려 했다. 본 연구의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집약되는 현단계 산업구조조정의 성격은 생산직 노동시장의 수요구조를 성장산업과 사양산업에서 상이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즉, 설비투자가 집중되는 성장산업에서는 노동력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업종전환과 해외투자를 추진하는 사양산업에서는 합리화가 진행되면서 노동력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한편, 노동력 공급구조에서는 제조업부문의 고용 규모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산업으로는 노동력 공급이 증가하는 반면, 사양산업으로는 노동력 공급이 감소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수급구조가 이렇게 변화됨에 따라 성장산업의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양산업의 취업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둘째, 성장산업과 사양산업의 생산직 노동시장의 공급구조가 이처럼 상이하게 변화되는 이유는 성장산업과 사양산업의 노동비용 격차 때문이다.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성장산업, 그중에서도 대기업의 임금과 기업복지 수준 모두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성장산업은 노동력 수요가 급속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인력난을 겪지 않는 반면, 사양산업은 노동력 수요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처럼 대조적인 양상은 대기업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성장산업 대기업에서는 이직률이 낮아지면서 고용이 안정되고 있다. 임금과 고용안정성을 기준으로 볼 때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셋째,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산업 대기업에 고유한 기업특수적 숙련은 아직 발달되지 않고 있다. 관리감독은 강화되지만 기능적 숙련의 수준은 높아지지 않고 있다. 이는 현단계 산업구조조정의 성격과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성

장산업의 대기업들은 생산직 노동자들의 숙련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써 기존의 대량 생산에서 벗어나려고 하기보다는 대량생산방식을 재정비하면서 단순반복적인 반숙련노동을 고수하고 있다. 생산직 노동자들의 내부승진도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성장산업 대기업의 내부노동시장은 '개방형' 내부노동시장의 특성을 보인다.

이상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는 몇가지 차원에서 한국사회의 변화를 전망해 볼 수 있다. 첫째로, 현재와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계속된다면 한국사회 노동자들의 산업별, 규모별 이질화는 보다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저임금·장시간노동이라는 조건 속에서 오랫동안 지속돼 온 노동자들의 동질성을 해체하는 것으로서 이와 더불어 노동자 의식의 이질화 또한 진전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최근 일부 노동조합들이 산업별 노조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산업별 단위의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자 내부의 이질화 추세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그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둘째로, 최근의 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노동자들의 숙련수준이 높아지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을 불신하고 통제 대상으로 간주해 온 대기업의 노무관리 전략이 지속되는 데서 기인한 것이다. 통제 위주의 노무관리전략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것은 창의적 노동을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세계경제의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성과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다. 대기업들은 규범적 차원에서 뿐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의 차원에서도 노동자들의 숙련을 향상시키고 의사결정과정에 이들을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노동의 인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대량생산방식의 재정비'로 집약되는 현재와 같은 성격의 산업구조조정이 지속될 경우 한국경제는 단기적으로는 성장산업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외형적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성장산업의 중저가 제품을 중심으로 한 이와 같은 성장방식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다품종소량화'로 집약되는 세계경제의 변화 추세를 감안할 때, 내수시장과 동아시아, 동구권 등 해외 수출시장의 양적 성장에만 의존한 대량생산방식은 한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제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경제기획원, 각년도,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_____, 각년도, 『산업센서스보고서』.
 노동부, 각월호,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_____, 각년도, 『고용전망보고서』.
 _____, 각년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
 _____, 각년도, 『노동통계연감』.
 _____, 각년도, 『사업체노동실태조사』.
 한국산업은행, 각년도, 『설비투자계획조사』.

- 류승호, 1992. 「파트타임노동과 한국 노동자 상태의 변화」, 『동향과 전망』 여름, 백산.
 배무기, 1991. 『한국의 노사관계와 고용』, 경문사.
 송호근, 1991. 『한국의 노동정치와 시장』, 나남.
 임휘철·전병유, 1990. 「산업구조조정과 노동자계급」, 『동향과 전망』 봄, 백산.

- 전병유, 1994. 「한국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의 숙련 구조에 관한 연구」, 서울대 경제학과 박사학위 논문.
- 정이환, 1992. 「제조업 내부노동시장의 변화와 노사관계」,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1993.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정책수립에 관한 조사보고서」.
- Doeringer, P. and Piore, M. 1971. *Internal Labor Market and Manpower Analysis*, D.C. Heath.